

대학생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및 취업스트레스 관계에서 핵심자기평가의 조절효과 연구

현선해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서문교 (웅지세무대학교 회계정보과)**

권인수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국 문 요 약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창업의도가 높아지면서 두 개념에 동시 적용할 수 있는 변수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까지의 연구들은 각각의 개념에서 미치는 영향력 변수만을 살펴왔기 때문에 창업과 취업을 구분해서 생각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창업 효능감을 이용, 취업 스트레스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또한 핵심자기평가의 개념을 조절 변수로 활용해 취업 스트레스와 창업 의지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가설 검증에 위해 전국 349명의 대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변수별로 선행 이론에 근거해서 설문문항을 만들었으며, 특히 핵심자기평가는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감이 포함된 개념인 능력중심 자기평가와 통제 위치와 신경증 성향이 포함된 정서중심 자기평가의 개념으로 구분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세부적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창업 효능감은 창업의도에 강한 영향력을 보여, 기존의 선행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취업 스트레스에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보여, 창업 효능감이 있으면 취업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자기평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취업 스트레스에 능력중심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지만, 정서중심은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창업의도역시 능력중심, 정서중심 모두 영향력을 증가 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창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방식과 제도가 필요하고 핵심자기평가에 대한 개인의 인식형성이 취업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주제어: 창업 효능감, 핵심자기평가, 창업의도, 취업 스트레스

I. 서론

통계청(2016)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고등교육 기관별 졸업자 취업률은 평균 58.6%이며, 이 중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54.8%인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 졸업자 중 절반이 약간 넘는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도 61.4%로 4년제 대학 졸업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일자리를 얻은 경우가 많고 직업교육을 목표로 설립된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전문대학 졸업생들도 취업에 있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취업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창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고용노동부(2014)가 전국 대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창업의도에 관한 조사에서 향후 창업할 의향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 58.4%이었으며,

현재 창업 의향이 있고 실제 창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도 4.9%로 전체 60%가 넘는 대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국내의 많은 학자들이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창업의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했다. 김정아(2014)는 비서학전공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을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취업실전준비, 사회지지추구 등을 주장했으며, 조선희·전경숙(2015)은 자기 효능감, 우울 증상, 학년, 전공, 성적, 취업 상태가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를 줄인다고 주장했다.

창업의도의 경우는 박광오·안진우(2015)이 대학생들의 창업 동기부여와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대학의 창업 인프라, 창업 애로사항을 제시했고, 홍정표·양혜술(2014)는 개인역량과 경력지향의 안전, 자율, 기술, 사업지향이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취업 스트레스와 창업의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twokids@skku.edu

** 제2저자, 웅지세무대학교 회계정보과 부교수, zard@wat.ac.kr

*** 교신저자,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kwonis@sejong.ac.kr

· 투고일: 2016-11-08 · 수정일: 2016-12-22 · 게재확정일: 2016-12-25

아직 두 변수에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 변수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 효능감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을 원인 변수로 선택해 취업 스트레스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봉호(2013)는 청년 창업자들의 심리적 특성 분석에서 창업효능감이 창업 성공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정대용·채연희(2016)도 대학생들의 성격특성과 창업의도와의 관계에서 창업 효능감이 매개역할을 보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창업을 진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창업 효능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창업 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George & Jones(2015)는 스트레스의 주 원인중 하나가 개인의 능력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특정 업무와 관련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 특히 개인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술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처럼,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수행해서 스트레스를 줄어나간다. 많은 대학생들이 과도한 스펙 (Specification)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나타나듯이 취업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은 개인의 능력 부족의 인식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바로 효능감인 것이다. 종합하면 창업 효능감은 창업의도와 취업 스트레스의 원인 변수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핵심자기평가 (Core-Self Evaluation)는 이러한 관계를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이다. Judge & Bono(2001)는 핵심자기평가를 ‘나는 경쟁력이 있다.’와 같은 본래의 자기인식이라 했는데, 잠재적으로 긍정적이면서 자신 있는 심리상태가 형성된다면 창업 효능감이 취업 스트레스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크게 상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 운영과 투자유치, 그리고 네트워크까지 중요시하는 창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신감 있는 심리적 확신이 있는 경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역시 취업 성공에 대한 강한 믿음이 동반될 경우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창업의도와 취업 스트레스를 설명하는데 있어 핵심자기평가는 중요한 조절 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핵심자기평가가 취업과 창업 연구에 이용된 연구는 매우 부족하고 실증연구 역시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심자기평가가 기존의 창업의도와 취업 스트레스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학문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취업 스트레스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과 비교해 창업 효능감의 명확한 개념 정의를 도출하였으며, 창업의도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핵심자기평가의 조절 측면의 경우 요인 분석 결과에 따라 내, 외적인 관점으로 구분해서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수행 방법은 우선 각 변수의 이론적 배경을 분석해 가설 설정을 했다. 다음으로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 검증을 실시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창업 효능감의 중요성과 핵심자기평가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론적 시사점 이외에도 대학생들의 취, 창업 교육과 활동 등에 있어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2.1 창업 효능감

Zhao, et al.(2005)는 창업 효능감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을 창업에 있어서 기업가적인 역할과 과업을 무사히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 또는 기대라 정의했다. 즉, 특정 과업을 목표 수준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의 개념을 창업에 맞춘 것이다. 처음으로 이 의미를 도입한 Boyd & Vozikis(1994)는 창업 효능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창업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불확실한 상황을 해결하고 다양한 도전 및 위험에 있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이 있다고 주장했다. McGee, et al.(2009)도 창업 효능감이 높은 창업자는 창업환경의 경쟁도 기회로 인식하게 되고, 위험 및 불확실성이 높은 창업 현실도 알맞게 대처해 성공적으로 창업 활동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창업 효능감이 낮은 경우에는 주변의 경쟁 환경을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도 놓친다고 보았다. 이렇듯 창업에 있어서 창업 효능감은 문제 해결 인식이나 업무를 추진해 나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개인의 태도 변수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창업 효능감과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의 차이는 무엇인가? Bandura(1997)는 사회적 인지이론 (Social Cognitive Theory)의 학습 과정에서 자기 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혼자서 스스로 특정한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교육 훈련 없이는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기 효능감에서는 특정 과업 (Task-Specific)이라는 범위가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창업의 경우는 과업의 속성 보다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 활동이 모두 포함된 경우로 과업보다는 훨씬 더 넓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Scherer, et. al.(1989)도 창업 효능감이란 특정 개인이 기업가로 성공하고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의 강도를 의미한다고 했다.

박재환·최민정(2016)는 창업 효능감을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변수임을 증명하면서, 창업 효능감의 개념을 창업에서 요구되는 여러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개인의 믿음 상태라고 정의한 Chen, et al.(1998)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결국 창업 효능감은 창업을 하려는 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환경을 분석, 조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창업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자신만의 신념 상태인 것이다.

다음으로 창업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을 살펴보면 Wilson, et al.(2007)는 창업교육을 실시할 때,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인식이 나타나 도전, 혁신, 위험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신념이 생겨난다고 했다.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에서도 성공적인 과거경험과 대리학습과 같은 방식이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창업교육에 관련된 교과목과 교육을 실시하면 창업 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창업교육이 창업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Bullough, et al.(2013)는 창업 효능감이 상황의존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다른 특성 및 창업과 관련된 상황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렇듯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나타듯이 창업 효능감과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또한 창업 효능감의 정확한 범주의 개념 정의를 통해 향후 연구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2.2 창업의도와 취업 스트레스

Crant(1996)는 잠재적인 창업가가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창업의도 (Entrepreneurial Intention)라 정의했다. 이 후 많은 연구들에서 그 정의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Balaceanu, et al.(2014)는 창업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낮은 비용의 새로운 산출물로 만들어가는 활동이라 했으며, Dollinger(2008)는 혁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자원을 수집해 이윤추구의 기회를 마련하는 경제적인 조직의 설립을 창업이라 했다. 선행연구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창업의도란 창조적 활동을 기반으로 한 산출물을 만들어가는 제반 활동에 대한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창업에 대한 동기를 Shapero & Sokol(1982)는 창업 이벤트 모델 (Entrepreneurial Event Model)을 통해 설명했다. 개인이 겪은 생애의 중요한 사건 지각은 개인의 창업에 대한 의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업의도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Robinson, et al.(1991)은 창업의도를 창업 태도 오리엔테이션 (Entrepreneurial Attitude Orientation)를 통해 성취감, 개인통제, 혁신, 자기 효능감의 개인적 특성과 감정, 인식, 노력의 감정 태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였다. Lee-Gosselin & Grise(1990)은 창업에 대한 다양한 동기 요인들을 제시했는데, 일에 대한 만족의 저하, 사업 기회의 발생, 경영자에 대한 욕구, 자금 확보, 자유 및 유연성, 독립적 사업 운영 등 여러 요인이 창업 의도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학생들에게 있어 창업 의도는 Leffel(2008)이 대학생들의 창업의도 요인을 창업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진취적인 개인행동 성향, 창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열망의 3가지 요소를 주장한 것처럼, 창업자 본인의 개인적 측면과 주변 상황의 요소들이 함께 상호작용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양준환(2014) 역시 창업 의도는 창업교육과 창업동기, 창업에 관한 열망 등과 같은 자기효능감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창업

의도는 창업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선행변수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이현주(2014)는 취업 스트레스 (Job-Seeking Stress)를 취업의 실패 또는 실업이 장기화됨으로 나타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라 정의했다. 김정아(2014) 역시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는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대학 졸업을 앞둔 사람들이 미결정 상황에 직면하여 불안한 상태이고, 신체적으로도 긴장한 상태라 정의했다. 결국 취업 스트레스는 미취업으로 인한 원인도 있지만 다양한 환경의 불확실성과 사회 부적응의 문제 등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Holland & Holland(1977)는 진로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정의 장애가 아닌 본인 자신을 그렇게 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 취업에 있어서 미결정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대표적인 국내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는 다음과 같다. 이현주(2014)는 문헌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하위 요인으로 학업, 성격, 가족환경, 학교환경의 4가지 요인을 제시했고, 이 하위요인들에 취업불안을 포함시켜 취업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대학생들은 여러 요인의 스트레스가 취업 스트레스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업 스트레스는 복잡한 감정 상태를 발생시키고 고민과 불안을 지속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부정적 효과를 낮추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경옥·조윤희(2009)은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라 주장했고, 김민정·조금호(2011)도 대학생들이 진로 선택 시 부모와 타인과의 갈등을 경험해 취업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과도한 취업 스트레스는 사회생활과 함께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완충시키거나 제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2.3 핵심자기평가

Judge, et. al.(1997)은 핵심자기평가 (Core Self Evaluation)란 세상을 바라보는 주관적 또는 인지적 평가의 기본적인 기준으로 개인의 성향을 나타내는 특성이라 했다. Judge, et. al.(2005)는 어떤 개인의 가치와 자신감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전반적 평가라고 주장했으며, Boyer & Mosley(2007)는 특정 조직에 속해있는 구성원이 조직 생활에서 보여주는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을 분석하는 이론이라 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정의에 비추어 봤을 때 핵심자기평가는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주관적인 평가 요소이고 성향적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Judge, et al.(1997)는 핵심자기평가의 요소로 자아 존중감 (Self-Esteem), 일반화된 자기 효능감 (Generalized Self Efficacy), 통제의 위치 (Locus of Control), 신경증 (Neuroticism)의 4가지

를 제시했다. 각 개념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아 존중감은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 또는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을 의미한다. 일반화된 자기 효능감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판단을 의미한다. 통제 위치는 본인의 행동이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신경증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나타나는 두려움을 의미한다. 즉, 정서적 안정 (Emotional Stability)의 정도라 볼 수 있다.

처음으로 이론을 제시한 Judge, et al.(1997)은 하위 요소들 외에 핵심자기평가의 구성 요인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단순히 성격적 특성을 합친 상위의 개념으로만 정의했기 때문에 이론적 완결성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 하지만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핵심자기평가를 검증했으며, Erez & Judge(2001)은 하위차원의 4가지의 개별적 특성보다 오히려 성과에 더 긍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최근에는 태도와 행동 연구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Judge, et al.(1998)는 핵심자기평가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특성 지각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Erez & Judge(2001)은 직무성과와 목표설정동기 및 활동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했으며, Best, et al.(2005)는 핵심자기평가가 직무소진을 매개로 해서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에서 직무소진을 줄여준다고 주장했다. Judge, et al.(2005)는 핵심자기평가가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을 높여주고 목표달성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Judge, et al.(2005)는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에 대해 핵심자기평가가 높은 개인은 자신의 역량 및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이 형성되어 적극적인 목표설정과 함께 실행, 평가를 한다고 주장해 해당 이론의 동기부여 측면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핵심자기평가를 측정구조에는 1요인과 2요인의 2가지 방법이 있다. 김종규 외(2015)에 의하면 1요인의 경우 핵심자기평가를 4개 요소의 공통 개념으로 파악하고 수렴타당도에 관심을 둔 연구이다. 하지만 4개 요소를 하나의 요인으로 볼 정도로 높은 상관관계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1요인 이론에 대한 반론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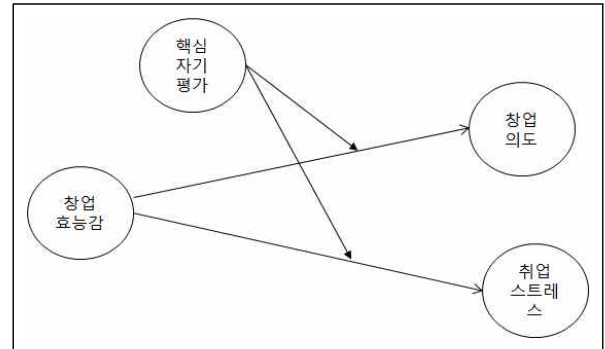
2요인 구조는 Judge & Larsen(2001)의 연구에서 긍정적, 부정적 핵심자기평가의 구조로 구분한 것이 그 시작이다. 2요인 관점의 경우 자기 존중감과 효능감을 긍정적, 통제 위치와 신경증을 부정적으로 구조를 만들어 측정한 경우인데, 긍정과 부정 문항을 함께 사용해 측정해서 해당 결과가 나왔다는 방법효과를 통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III.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창업 효능감이 취업 스트레스와 창업 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려 한다. 또한 핵심자기평가가 영향을 미칠 때의 조절효과도 같이 살펴보려 한다.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각 변수들을 측정했으며, 측정된 변수들은 <그림 1>과 같이 수립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그림 1> 연구 모형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연구모형의 변수 측정은 선행 이론에서 사용한 설문내용을 이용하였다. 창업 효능감은 자신의 창업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나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Wilson, et al.(2007)의 창업 효능감 척도를 수정한 5문항을 이용했다. 사용한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창업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창의적으로 해결할 자신이 있다.’, ‘나는 창업에서 불확실 및 위험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 등이 있다.

창업 의도는 Yusof, et al.(2007)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해 사용하였으며,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나에게는 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나는 졸업 후 일정기간 준비를 하고 창업할 계획이다.’ 등이 있다.

다음으로 취업 스트레스는 코넬 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 (Conell Medical Index)에 기초해서 대학생의 취업 상황에 맞춰 수정한 설문을 이용하였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된 문항으로는 ‘나는 요즘 취업문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게 된다.’, ‘취업에 실패하지는 않을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핵심자기평가는 Judge, et al.(2003)의 핵심자기평가척도 (The Core Self-Evaluations Scale) 12문항을 사용하였다.

핵심자기평가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이 문항은 긍정문항 6개, 부정문항 6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요소의 핵심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부정문항 6개는 실증분석 시 역코딩 (Reverse Coding)을 통해 수정했으며, 사용한 문항을 살펴보면, ‘인생에서 성공하리라는 자신감이 있다.’, ‘모든 것이 힘들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종규 외(2015)는 핵심자기평가척도 (CSSES)가 2요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고,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의 결과에 따라 요인분석에서 2요인으로 구분될 경우 핵심자기평가를 구분해서 살펴보려 한다.

3.3 가설설정

3.3.1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와와의 관계

Shapero & Sokol(1982)은 창업 이벤트 모델에서 생애에 중요한 사건과정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창업 발생가능성이 생겨난다고 주장했다. 이는 창업이라는 것이 특별한 역량과 기술이 있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의도가 발생했기 보다는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의지가 있을 때 창업에 대한 의도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Krueger, et al.(2000)는 창업의지를 주변 사람들의 기대된 가치 (Expected Values), 사람들이 중요시 하는 것들을 따르는 규범적 신념들 (Normative Beliefs), 특정 행동을 실행하려는 역량인 인지된 자기효능감(Perceived Self-Efficacy)의 3가지 요소가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즉, 창업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지된 행동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있어야 창업을 하려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증명하기 위해 Wilson, et al.(2007)와 Krueger & Brazeal(1994)는 창업에 관련된 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와 관련된 있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Fayolle(2005)는 대학생의 자기 유효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창업교육을 통해 유효성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Yar et al.(2008)도 기업이 정신을 교육 받은 대학생의 혁신성과 같은 창조적 기질에 의해 창업의도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종합해보면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도 자신의 역량 개발과 함께 적절한 교육을 통해 창업에 대한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 대학생의 창업 효능감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이다.

3.3.2 창업효능감과 취업 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학생들은 졸업 전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결정해 사회 진출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많은 대학생들이 명확한 진로결정을 하지 못해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겪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Lazarus & Folkman(1984)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에 문제 중심과 정서 중심의 해결방식을 제시했다. 문제 중심은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정서 중심은 스트레스로부터 비롯되는 상태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문제와 원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가장 적합한 전략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이를 증명했는데, 박광희(2008)은 자기 효능감이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크고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도 간접적으로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한금선(2005) 역시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날 때의 예측요인으로 자기 효능감을 밝혀냈고 Gall, et al.(2000)는 스트레스를 발생하는 원인인 진로문제 등에 자기

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자기 효능감과 취업 스트레스와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자기 효능감의 개념을 창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시킨다면 창업 효능감도 취업 스트레스를 줄이는 원인이 된다.

창업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위험이나 역경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창업 현실에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실패의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이 높았을 때 보이는 태도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창업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위험이 높은 상황과 불확실 상황에서 우수하게 대응력을 발휘하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기회를 노려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Krueger & Brazeal, 1994), 취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창업 효능감이 높으면 창업에 대한 목표에 맞게 계획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취업이라는 진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했다.

가설 2 : 대학생의 창업 효능감은 취업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이다.

3.3.3 핵심자기평가의 조절효과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핵심자기평가는 내적 동기부여의 매개를 통해 직무의 만족, 조직에 대한 몰입, 리더십, 혁신적인 행동, 직무에 관한 성과 등 조직 효과성 및 개인 수준에서의 행복과 생애주기에서의 만족에도 영향을 보인다고 했다. 이렇듯 핵심자기평가는 개인 차원에서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주요한 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Judge, et al.(2005)는 핵심자기평가가 높은 개인은 언제 발생할 모르는 문제적 상황을 최소화하려 노력하며, 주변의 상황을 항상 긍정적으로 지각해 자신에게 부여된 상황에 대한 지각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Hiller & Hambrick(2005)는 핵심자기평가가 높은 직원은 주어진 일을 자신감 있게 처리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또한 많은 잠재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적은 특성을 보인다고 했다.

이미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창업 효능감은 창업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도전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신념을 보인다. 환경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회를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결국 창업 효능감에 핵심자기평가가 상호작용을 한다면, 앞서 제시한 가설 1, 2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 변수에 더 큰 영향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이론적 배경의 함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3 : 대학생의 핵심자기평가는 창업 효능감과 창업의도 및 취업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표 1> 타당성 · 신뢰성 분석 결과

잠재변수	측정항목	component					신뢰 계수
		1	2	3	4	5	
취업 스트레스	요즘 나는 꿈속에서도 취업걱정을 한다.	.824	-.015	-.052	-.027	-.111	.902
	취업에 대하여 걱정을 하다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구토가 내려한다.	.816	-.056	-.144	-.019	-.176	
	나는 요즘 취업문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게 된다.	.773	.000	-.099	.017	-.148	
	취업에 실패하지는 않을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	.766	-.212	-.228	.040	-.135	
	나는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입맛을 잃을 정도이다.	.744	.039	.002	-.149	-.037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취업을 해야 하지만 자꾸만 자신감이 없어진다.	.743	-.092	-.230	-.019	-.111	
	나는 요즘 취업걱정으로 술이나 담배, 약물(두통약 등) 등의 복용이 늘었다.	.697	.136	-.012	-.055	-.091	
	나는 취업에 실패한 적이 있어 또다시 실패가 되풀이 될까봐 두렵다.	.696	.197	.011	-.252	.067	
창업의도	나는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창업 관련 정보를 유심히 본다.	.018	.861	.040	.240	-.014	.913
	나에게는 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006	.861	.068	.242	.046	
	나에게는 창업자가 되고자하는 성향이 있다.	-.054	.860	.074	.291	.043	
	나는 졸업 후 일정기간 준비를 하고 창업할 계획이다.	.068	.819	.111	.113	.040	
	나는 졸업 후 바로 창업할 계획이다.	.026	.758	.029	.027	-.027	
능력중심 핵심자기평가	나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015	.010	.730	.223	.144	.803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	-.044	-.040	.686	.044	-.009	
	나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074	.036	.672	.164	.077	
	대체로 내 자신에 만족한다.	-.223	.173	.652	-.041	.227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162	.074	.637	.239	.095	
	인생에서 성공하리라는 자신감이 있다.	-.152	.226	.633	.258	.153	
창업효능감	나는 창업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극복하고 해결할 자신이 있다.	-.051	.343	.221	.733	.022	.800
	나는 창업에서 불확실, 위험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	-.150	.217	.151	.724	.077	
	나는 창업과정에서 자금을 잘 관리할 자신이 있다.	-.009	.081	.069	.655	.095	
	나는 창업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창의적으로 해결할 자신이 있다.	-.078	.396	.211	.630	.012	
	나는 창업에서 직원들을 격려하여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자신이 있다.	-.094	.097	.286	.596	.176	
정서중심 핵심자기평가	실패했을 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가끔 있다. (R)	-.133	.031	.142	.090	.787	.736
	나의 업무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가끔 있다. (R)	-.023	-.027	.014	.146	.736	
	모든 것이 힘들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다. (R)	-.337	.075	.311	.024	.606	
	내 경력에서의 성공을 관리할 수 없다고 느낀다. (R)	-.339	.003	.275	.078	.591	
고유값		7.347	4.583	2.408	1.516	1.351	-
설명된 분산비율		26.239	16.369	8.601	5.416	4.827	

IV. 실증분석 결과

4.1 표본특성 및 기초통계 분석

연구조사를 위해 전국의 대학 중 재학생 1만 명이 넘는 4년제 대학교를 랜덤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학교에서 취업과 창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상경계열 학과의 학생들을 추출했고 이들을 직접 만나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자들에게는 사전에 설문 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설명을 진행했으며, 설문 내용을 이해한 응답자들은 설문을 작성한 후 반송봉투에 담아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게 조치를 취한 후 설문을 회수하였다. 총 349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응답한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어 모두 통계에 사용되었다.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은 57.9% (n=202) 여성은 42.1% (n=147)이고, 연령은 18세부터 28살까지 (M=22, SD=2.88)의 분포를 보였다. 학년은 1학년 35.5% (n=124), 2학년 22.6% (n=79), 3학년 26.4% (n=92), 4학년 15.5% (n=54)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바이트와 같이 일용직 근무를 제외한 인턴 및 계

약직 또는 정규직 직장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23.5% (n=82)가 직장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4.2 타당성·신뢰성·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했는데, 요인 수 결정은 고유 값이 1이상의 범주를 근거로 Varimax 회전 방식을 이용해 분석했다.

요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0.5 미만의 적재량을 보인 핵심 자기평가 2문항을 제거했고, 그 결과 총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앞서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서 밝힌바와 같이 핵심 자기평가 척도는 일반적으로 2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2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자기 존중감과 효능감을 평가한 요인에 대해서는 ‘능력중심 핵심자기평가’라 했으며, 통제 위치와 신경증을 평가한 요인에 대해서는 ‘정서중심 핵심자기평가’라고 정의했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변수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α 값을 구했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모든 구성요소의 Cronbach's α 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 설정에 사용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했다.

상관관계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취업 스트레스와 창업의도, 창업의도와 정서중심 핵심자기평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1$). 특히 창업 효능감은 취업스트레스와 부(-)의 관계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r = -.205, p < .01$), 창업의도에는 정(+),의 관계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 = .486, p < .01$). 그리고 능력중심 핵심자기평가 ($r = .475, p < .01$), 정서중심 핵심자기평가 ($r = .286, p < .01$)에도 유의하게 상관관계를 보여 가설을 뒷받침해 주었다.

<표 2>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1	2	3	4	5
1. 창업효능감	1				
2. 취업스트레스	-.205***	1			
3. 창업의도	.486***	-.026	1		
4. 능력중심 CSE	.475***	-.308***	.238***	1	
5. 정서중심 CSE	.286***	-.420***	.094	.454***	1

* 주: ** $P < .01$ 수준에서 유의함.

4.3 가설검증 결과

창업 효능감이 창업의도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별, 연령, 학년, 직장경험 유무)를 통제변수로 사용해 분석에 포함시켰다.

우선 가설 1과 2를 검증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모형 1이 창업 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내용으로, 분석모형이 F값은 26.226 ($p < .001$)로 회귀식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창업 효능감의 종속변수인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beta = .458, p < .001$). 모형 1의 분산팽창요인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은 최대 1.419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3> 가설 1·2 분석결과

구분	모형 1		모형 2		
	창업의도(β)	VIF	스트레스(β)	VIF	
통제 변수	성별	-.156**	1.032	.021	1.033
	연령	.031	1.419	-.053	1.415
	학년	-.044	1.419	.304***	1.413
	직장경험	.118*	1.037	.094	1.036
독립 변수	창업 효능감	.458***	1.020	-.216***	1.020
F-value		26.226***		10.691***	
R2		.278		.136	

* 주: * $P < .05$, ** $P < .01$ ***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다음으로 모형 2는 창업 효능감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내용이다. F값은 10.691 ($p < .001$)로 역시 회귀식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으며, 독립변수인 창업 효능감이 종속변수인 취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도 지지되었다($\beta = -.216, p < .001$). 모형 2의 분산팽창요인 값은 최대 1.415로 나타나 모형 2에서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모형 3부터 모형 6을 제시하였다. 가설 검증 전 상호 작용항으로 인한 다중공선성을 줄이기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평균화 시켜 센터링한 후 두 변인을 곱한 값을 이용했다.

모형 3과 4는 종속변수가 창업의도로 조절변수 및 상호 작용항을 투입했을 때의 결과이다. 분석모형 F값은 각각 18.756 ($p < .001$)와 14.530 ($p < .001$)으로 회귀분석은 성립되었다. 하지만 창업 효능감과 능력중심 핵심자기평가, 정서중심 핵심자기평가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게 나와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 5와 6은 종속변수가 취업 스트레스인 경우로 조절변수 및 상호 작용항을 투입했을 때의 결과이다. 모형 5와 6의 분석모형 F값은 각각 20.856 ($p < .001$)와 17.647 ($p < .001$)으로 회귀분석은 성립되었다. 상호 작용항을 살펴보면 창업효능감과 능력중심 핵심자기평가가 β 값 -.130 ($p < .001$)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능력중심 핵심자기평가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중심 핵심자기평가의 상호 작용항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지 않아서 가설 3은 부분지지되었다.

<표 4> 가설 3 분석결과

구분	종속변수	창업의도(β)		취업 스트레스(β)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통제 변수	성별	-.154**	-.153**	.004	-.002
	연령	.034	.032	-.033	-.025
	학년	-.046	-.046	.315***	.312***
	직장경험	.120*	.118*	.089	.103**
독립 변수	창업 효능감	.466***	.467***	-.047	-.059
조절 변수	능력중심	.015	.018	-.147**	-.175**
	정서중심	-.050	-.051	-.357***	-.348***
상호 작용	효능감x능력		.012		-.130*
	효능감x정서		.012		-.026
F-value		18.756***	14.530***	20.856***	17.647***
R2		.280	.280	.303	.322
R2 change			.000		.019**

* 주: * $P < .05$, ** $P < .01$ ***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창업 효능감이 창업의도와 취업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핵심자기평가가 어떠한 조절역할을 하는지 실증분석을 했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창업 효능감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여러 대상들을 통해 효능감과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증명했고 그 결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었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에 쓰였던 일반적인 효능감이 아닌, 창업 효능감이라는 확장된 개념을 통해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봤지만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결국, 대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창업을 하려는 의지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해당 결과는 실무적으로 주는 시사점이 크다. 창업에 대한 위험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태도나 인식을 마련하려면 창업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Bandura(1997)는 대리학습으로 인해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창업 효능감 역시 창업 교육을 통해 그 정도를 높이고 창업의도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창업 성공사례를 통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이 만들어지면 대학생들은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 창업 효능감은 취업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생계유지의 개념 이상의 심리적,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확인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해당 지위를 얻게 된다. 대학생들은 취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자신의 직업적 관점을 창업으로 변경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창업 효능감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창업이라는 대안을 생각한 대학생 입장에서는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장이 아닌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창업 효능감을 통해 주변의 창업 환경과 같이 주변의 불확실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난다면, 취업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두 관점의 해석에서도 나타나듯이 창업 효능감은 창업 뿐만 아니라 취업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변수임에는 틀림없다.

셋째, 창업 효능감과 능력중심 핵심자기평가의 상호작용은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에서는 창업 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기각되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핵심자기평가의 측정 설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 핵심자기평가의 요인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 김중규 외(2015)은 이러한 요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핵심자기평가의 측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도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이 포함된 능력중심 핵심자기평가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지만 포함되지 못한 정서중심 핵심자기평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도 이를 증명해 준다.

하지만 연구결과에 나타나듯이 자기존중감 및 효능감으로 구성된 능력중심 핵심자기평가가 창업 효능감과 상호작용을 하면 취업 스트레스는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Seiffge-Krenke, & Shulman(1990)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정보와 충고를 수용해 문제해결의 노력을 보이는 적극적 대처방식과 문제를 회피하는 식의 역기능적 측면인 소극적 대처방식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국내의 대학생들은 불확실한 환경의 극복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자랑스러워하고 본인을 믿는다면, 취업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이다. 즉, 취업 스트레스에 소극적 대처방식을 취하는 것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방식이 취업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현장에서도 대학생들이 창업의 성공과 성취의 기쁨과 느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인 측면으로 지원해 준다면 취업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본 연구가 이론적,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국내 사회적 환경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연구의 타당성을 위해서는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종속변수에 있어서 창업의도와 함께 취업의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본 연구가 창업 효능감과 취업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분석했는데, 만약 취업의도에 대한 내용이 통제된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취업의도가 통제된 상태 또는 창업의도와 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비교하면 더 좋은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창업의도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더 다양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연구 결과의 의미를 높일 필요가 있다.

REFERENCE

- 고용노동부(2014), *대학생 창업활동 및 창업지원제도 현황 분석* (ISBN: 978-89-6331-430-3 93320),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김경욱·조운희(2009), 대학신입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8(4), 197-218.
- 김민정·조금호(2011),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 성숙도가 무망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3(4), 47-62.
- 김정아(2014), 비서학 전공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준비행동,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비서학논총*, 23(1), 141-164.
- 김중규·이순목·윤창영(2015), 핵심자기평가의 내적구조 검토,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8(3), 355-384.
- 박광오·안진우(2015),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34(3), 303-315.
- 박광희(2008), 대학생 우울에 관한 예측모형 구축,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e*, 38(6), 779-899.
- 박재환·최민정(2016), 대학생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 영향, *벤처창업연구*, 11(2), 9-19.
- 양준환(2014), 기업가정신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9(6), 65-77.
- 유봉호(2013), 청년창업자의 심리특성과 내재적 동기가 창업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6(10), 2669-2690.
- 이현주(2014),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요인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조절효과, *교육문제연구*, 53(1), 1-25.
- 정대용·채연희(2016),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셀프리더십이 창업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31(1), 85-110.
- 조선희·전경숙(2015), 대학생 스트레스와 영향요인, *스트레스 연구*, 23(2), 79-81.
- 통계청(2016),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 Retrieved Oct 11, 2016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46.
- 한금선(2005),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건강증진 행위와 스트레스 증상의 상관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5(3), 585-592.
- 홍정표·양해술(2014), 대학생들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합복합연구*, 12(11), 141-157.
- Balaceanu, C., Apostol, D. & Dragne L.(2014), Entrepreneurship and knowledge. *Annals of Faculty of Marketing*, 1(1).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est, R. G., Stapleton, L. M. & Downey, R. G.(2005), Core self-evaluations and job burnout: The test of alternative model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0(4), 441-451.
- Boyd, N. & Vozikis, G.(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63-77.
- Bullough, A., Renko, M. & Myatt, T.(2013), Danger zone entrepreneurs: the importance of resilience and self efficacy for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63-77.
- Cho, S. H. & Jeon, K, S.(2015), Influencing Factors of Job-seeking Stres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in West South Area,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3(2), 79-81.
- Chen, C. C., Greene, P. G. & Crick, A.(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295-316.
- Chung, D. Y. & Chae. Y. H.(2016),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and Self-Leadership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Korean College Student Mediated by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31(1), 85-110.
-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 Dollinger, M.(2008), *Entrepreneurship: Strategies and Resources 4th Edition*. Lombard, IL: Marsh Publications.
- Erez, A. & Judge, T. A.(2001), Relationship of core self evaluations to goal setting, motiva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6), 1270-1279.
- Fayolle, A.(2005), Evalua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behavior performing or intention increas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2(1), 89-98.
- Gall, T. L., Evans, D. R. & Bellerose, S.(2000), Transition to first-year university: Patterns of change in adjustment across life domains and tim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4), 544-567.
- George, J. M & Jones, G. R.(2015), *Understanding and Managing Organizational behavior 6th Edition*, Pearson Education.
- Han, K. S.(2005), Self Efficacy,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ymptoms of str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e*, 35(3), 585-592.
- Hiller, N. & Hambrick, D.(2005), Conceptualizing executive hubris: The role of (hyper-) core self evaluations in strategic decision making,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6(4), 297-319.
- Holland, J. L & Holland, J. E.(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24(5), 404-414.
- Hong, J. P. & Yang, H. S.(2014), A stud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determinant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1), 141-157.
- Judge, T. A. & Bono, J. E.(2001), Relationship of core self evaluations traits—self-esteem, generalized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emotional stability—with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A meta 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1), 80-92.
- Judge, T. A., Bono, J. E., Erez, A. & Locke, E. A.(2005), Core self-evaluations and job and life satisfaction: The role of self-concordance and goal attain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2), 257-268.
- Judge, T. A., Erez, A., Bono, J. E. & Thoresn, C. J.(2003). The core self-evaluations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Personnel Psychology*, 56, 303-331.
- Judge, T. A. & Larsen, R. J.(2001). Dispositional source of job satisfaction: A review and theoretical extens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86(1), 67-98.
- Judge, T. A., Locke, E. A. & Durham, C. C.(1997), The dispositional causes of job satisfaction: A core evaluations approach,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9, 151-188.
- Judge, T. A., Locke, E. A., Durham, C. C. & Kluger, A. N.(1998), Dispositional effects on job and life satisfaction: The role of core evalu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3(1), 17-34.
- Kim, J. A.(2014),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b Preparation Behavior, and Stress Coping On Job-Seeking Stres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tudies,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23(1), 141-164.
- Kim, J. K., Lee, S. M. & Youn, C. Y.(2015), Analysis of the factor structure of Core Self-Evaluations through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8(3), 355-384.
- Kim, K. W. & Jo, Y. H.(2011),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Career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Freshmen, *Korean journal*

- of youth studies. 18(4), 197-218.
- Kim, M. J. & Jo, K. H.(2009), The Influence of Unemployment-related Economic Stres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n Hopelessness and Mental Health in Korean Youth,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3(4), 47-62.
- Krueger, N. F. & Brazeal, D. V.(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1), 91-104.
- Krueger, N. F., Reilly, M.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 411-532.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ee, H. J.(2014), Moderating Effects of Sel-Encourage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School Life Adaptation of Undergraduates,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53(1), 1-25.
- Lee-Gosselin, H. & Grise, J.(1990), Are women owner managers challenging our definitions of entrepreneurship? An in depth survey, *Journal of Business Ethics*, 9(4), 423-433.
- Lee, S. J. & Go. H. S.(2016), Differences in perception research of employment and start-ups rely on the will of university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9), 133-142.
- McGee, J. E., Peterson, M., Mueller, S. L. & Sequeira, J. M.(2009),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Refining the Meas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4), 965-988.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2014), *Undergraduate business start-up and start-up support system status Analysis(ISBN: 978-89-6331-430-3 93320)*.
- Park, J. H & Choi, M. J.(2016),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Regulatory Focu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2), 9-19.
- Park, K. H.(2008), Development of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estimate university students'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e*, 38(6), 779-899.
- Park, K. W. & Ahn, J. W.(2015), Empirical research on start-up intention of undergraduate, *Management and Information System Review*, 34(3), 303-315.
- Robinson, P. B., Stimpson, D. V., Huefner, J. C. & Hunt, H. K.(1991), An attitude approach to the prediction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9(4), 13-31.
- Scherer, R., Adams, J., Carley, S. & Wiebe, F.(1989), Role model performance effects on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career prefere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3(3), 53-71.
- Shape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Seiffge-Krenke, I. & Shulman, S.(1990), Coping style in adolescenc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1(3), 351-337.
- Statistics Korea(2016), *University graduate employment rate*, Retrieved Oct 11, 2016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46.
- Wilson, F., Kickul, J. & Marlino, D.(2007), Gend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3), 387-406.
- Yang, J. H.(2014),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motiv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6), 65-77.
- Yar, H. D., Wennberg, K. & Berglund, H.(2008), Creativity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5(2), 304-320.
- Yoo, B. H.(2013), The Effect of Young Entrepreneu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ntrinsic Motivation on the Possibility of Sart-up Success,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6(10), 2669-2690.
- Yusof, M., Sandhu, M. S. & Jain, K. K.(2007),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clination: A case study of students at University Tun Abdul Razak, *Journal of Asia Entrepreneurship and Sustainability*, 3(2), 1-14.
- Zhao, H., Seibert, S. E. & Hills, G. E.(2005),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6), 1265-1272.

The Moderating Effects of Core-Self Evalu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Job-Seeking Stress

Hyun, Sun Hae*
Seo, Moon Kyo**
Kwon, In Su***

Abstract

As university students' job seeking stres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crease, the importance of variable research that can be applied to both concepts. However, recent studies researchers looked at only the influence variables in each concept. So they thought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employment.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s of core-self evalu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job-seek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The data of 349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were collected for the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multi-regression modeling. All data collected from the survey were analyzed using with SPSS 21.0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results showed that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 directly. Second, core-self evaluation affect job-seek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Finally, it was also found that there was moderating effect of core-self evaluation in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job-seek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of core-self evaluation in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Based on what has been learned through the analy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n educational system and institutional are needed to increase entrepreneurial efficacy. And It can be seen that the recognition of core self-evaluation is effective for the job seeking stress. Also,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presented including some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Keyword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Core self-evaluation, Entrepreneurial intention, Job-seeking stress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wokids@skku.edu

** Associate Professor, Woongji Tax & Accounting College, zard@wat.ac.kr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jong University, kwonis@sejong.ac.kr